

## 눈 녹으면 포트홀 우후죽순... ‘양날의 검’ 염화칼슘

광주 지역 겨울철 제설제 3000~8000t 투입  
염화계 제설제, 포트홀 증가·나무고사 부작용  
“친환경제설제 증량하지만 가격 비싸” 고심

광주시가 겨울철 제설이 빠른 염화칼슘을 쓰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고심하고 있다. 염화칼슘이 도로 패임(포트홀)과 환경 오염을 일으키면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를 대체할 친환경 제설제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겨울철 제설제(염화칼슘·친환경제설제·소금) 총 1만

7639t이 광주 지역 도로에 뿌려졌다. 겨울철 지역에 투입된 제설제는 2022년(2021년 11월~2022년 3월) 3197t, 2023년(2022년 11월~2023년 3월) 8566t, 2024년(2023년 11월~2024년 1월) 5876t 이다. 매년 겨울철 평균 약 5000t의 제설제가 투입되는 셈이다. 특히 염화계 제설제는 눈을 잘 녹이는 장점

도 있지만 포트홀을 증가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폭설시 눈이 녹으면서 수축·팽창을 반복, 도로에 흠이 생긴다. 그 사이로 다량의 염화칼슘 제설제가 들어가면서 도로 패임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기준 광주 지역 포트홀은 2만 9831건이 발생했는데, 폭설 직후인 1월에만 포트홀이 5864건이 집중됐다. 2월~12월의 경우 포트홀은 1000~2000건 수준에 그쳤다. 화학 제설제는 자동차·철도 구조물 부식시키거나 토양 수분 뺏아들여 나무 고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광주시는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량을 매년 100~200t 늘리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보다 비용이 2~3배 더 들어 예산 부담이 크다. 친환경 제설제에도 염화칼슘이 일부 첨가돼 다량 살포할 경우 포트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눈 오기 전 결빙 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면서 앞으로 제설제 사용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이 뿌리자니 포트홀이 자주 생기고 적게 투입하면 결빙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다. 제설제 살포와 포트홀 보수가 반복돼 고심이 깊다”고 밝혔다.

김희면기자

설연휴 휴가 ‘빈익빈 부익부’  
기업들, 연차 붙여 쓰기 쉽지 않아

국내 주요 대기업 직원들은 올해에도 설 연휴(9~12일)를 전후로 최대 7일간 휴가를 즐길 수 있지만, 직장인 전체로 보면 7일 휴가는 일부에 그칠 조짐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이 설 명절에 덧붙여 추가 휴무를 쓸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자율 출퇴근제 운영으로 휴가 계획을 별도로 승인 받지 않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손쉽게 쓰도록 하고 있다. SK도 설 명절을 맞아 계열사별로 휴가 사용을 선택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월 1회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 ‘해피 프라이데이’를 명절 전날인 오는 8일로 정해 하루 일찍 쉬기로 했다. LG도 설 연휴 전후로 권장휴가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연휴 전날인 7, 8일과 다음주 13일에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직원들은 가장 7일간 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 대부분 기업들은 설 연휴에 연차를 붙여 쓰기가 쉽지 않다.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4%만 연휴 앞뒤로 연차를 사용하는 ‘샌드위치 연휴’가 있다고 답했다. 추가 연차를 왜 쓰지 않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 ‘업무가 많아 쓸 수 없어서’(32.0%) ▲ ‘쓸 필요가 없어서’(25.1%)를 주 이유로 꼽았다. 이어 ▲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눈치 줘서’(22.5%) ▲ ‘연차가 부족해서’(14.9%) 등이 뒤를 이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찾은 이낙연 “호남 정치 경쟁력 잃고, 민주당도 예전의 당 아니야”

“1인 정당 변해...당내 민주주의 죽어”  
“다당제, DJ이루고자 했던 필생 과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7일 “호남 정치는 경쟁력을 잃었고, 호남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온 민주당도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책임위원회의에서 “호남 정치가 경쟁력을 잃은 것은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시대의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했다”며 “그때와 판판으로 지금 민주당은 1인 정당이 됐고, 당내 민주주의도 다 양성도 죽었다. 이런 상태로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당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필생의 과제였다. 호남인 여러분께서 저희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새로운미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금은 문제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 국회를 독과점하며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부패하고 부도덕한 거대양당



이낙연·김종민 새로운미래당 공동대표가 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체제에 바람구멍이라도 내야 국정에 돌고구가 생긴다”며 “저희가 신당 새로운미래를 만든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땀을 흘려 생애를 바쳐야 하는 거대양당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

고 있다”며 “망국적인 양당독점 정치구도를 바꾸려고 저는 가시밭길에 나섰다”고 호소했다.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당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를 할지 아니면 전국 선거를 지원할지, 만약 출마한다면 광주를 포함해 어디에서 출마하는 것이 의미 있고 국가와 호남과 당에 도움 될지를 검토하고 당과 상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슬비기자

“설연휴, 어디 맡기지?”  
광주 반려인구 전전공공

반려 동물을 키우는 광주시민들이 명절 연휴마다 동반 이동 제약과 위탁 기관 부족 문제 등으로 전전공공하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광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29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연휴 때마다 반려 동물을 맡기거나 동반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장거리 이동에 제약이 많고 위탁 장소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박기연(30·여)씨는 “명절 때 강아지를 데리고 차량으로 오랜 시간 이동하기가 힘들어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만 할 예정이다. 장기 여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현행법상 기차와 고속버스 탑승 시 반려 동물은 이동장(케이지) 안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대형동물은 이동장에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대형견을 키우는 이혜주(28·여)씨는 “예견 호텔도 만석인 데다, 지인들 모두 여행을 가면 맡길 곳이 없다”며 “이동장에 넣더라도 좌석이 부족하고 기차·버스에서 두 자리를 예약하면 주위 반발도 심하다”고 토로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반려 동물을 위탁 보호할 시설도 딱 잔다. 광주 북구에서 애견 호텔을 운영하는 박모(38)씨는 “이미 기존 고객들이 1~2주 전에 명절 이용권을 예약해 자리가 다 찼다”고 전했다. 명절 전후에는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광주시동물보호소는 지난해 추석·설 명절 직후 일주일 사이 유기 동물 30여 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다 지난해 9월 27일에는 고양이가 3마리·개 2마리가 이동장에 담긴 채 보호소 앞에 버려졌다. 이를 두고 반려 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의견 수렴을 거쳐 기차 내 1~2좌석을 반려동물 동반 좌석으로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반려 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동물 복지를 고민해야 한다. 동물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변용일기자

설 명절 연휴로 2월 12일까지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제52회

강진  
청자  
축제

The 52nd  
Gangjin  
Celadon Festival

2024. FRI-SUN  
2.23.-3.3.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